

초등교육상담 활성화 방안

은혁기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과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지도와 상담이다.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교사들 또한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류방란, 2002). 즉 현장의 90%가 넘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동들의 생활지도와 상담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본인이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필요한 과제로 대답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아동청소년의 문제가 저연령화, 심각화,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은혁기, 2002). 기존에 중·고등학생의 문제가 초등학생의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문제의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따돌림을 비롯한 청소년문제의 그 시작은 초등학교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초등학교에서의 상담의 중요성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종류와 자격 조항에 전문상담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어 함께 삽입하였으며(교육부, 2003), 초중등학교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선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교육부, 2003).

이러한 초등상담의 중요성과 노력해도 불구하고 초등상담은 초등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물론 현장에의 적용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먼저 교육대학교의 교상양성과정에서 생활지도와 상담능력의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의 미흡과 상담관련 연구소(학생생활연구소)의 기능의 불충분 및 상담관련 활동의 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에 상담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생활지도와 상담이라는 과목뿐이며,

이 또한 교육대

학의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서 필수 또는 선택으로 되어 있다. 학생생활연구소의 기능 또한 일반대학교의 기능과 흡사하여 그 존재 가치가 저 평가되고 있다. 교육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는 그 기능을 예비교사로서의 생활지도와 상담능력 향상을 꾀하는 기관으로서도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생활지도와 상담능력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에 적용가능한 상담이론과 실체가 부족하다는 것과 교사들의 상담 능력과 적용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담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강진령, 연문희, 2003). 또한 이것은 기존의 상담이론들이 의료기관과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 밖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또한 성인 위주로 개발된 이론들이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은 채 교수되고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현장의 행재정적인 특수성이 초등상담의 학교현장 적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혁기(200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등교육상담의 일반적인 특징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학교 상담의 발전 경향을 살펴본 후에, 이를 기초로 하여 초등교육상담의 활성화 방안을 세가지 - 제도적 측면, 교육대학교의 상담교사 양성 측면, 초등학교의 상담활성화 방안-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이는 초등교육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한부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제도적 측면, 양성기관, 일선학교에서의 동시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 그 효과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II. 초등교육상담의 일반적인 특징과 문제점

1. 초등교육상담의 특징

학교상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상담기관이나 전문적인 상담기관에서의 상담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현재의 이론들이 대부분 전문상담기관이나 병원 장면에서 사용하는 이론과 실제이며, 교사들은 이를 교과목이나 연수 등을 통하여 배우는데 이를 학교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상담의

특징과 다른 기관과는 다른 학교상담의 장점을 알아보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먼저 학교상담의 특징을 장혁표(1992), 연문희·강진령(2002), 이향자(2003), Schmidt(2003), Gibson & Mitchell(2003)등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상담은 모든 교사가 기본적인 연수나 교육을 이수한 후에 담당해야 하며, 그 중에서 일부는 준전문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받아서 상담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학교상담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문제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함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학교상담은 학생스스로가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상담의 내용은 학생의 생활 모든 영역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상담은 상담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과 협조를 하여 진행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상담은 상담기관에서의 상담방법과 달리 호출상담도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호출상담을 할 때에는 비록 그 방법이 교사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비자발적인 상담이지만, 학교 특성상 중요한 상담이기 때문에, 호출된 학생에 대하여는 호출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해소한 후에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상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학교상담은 상담자와 교사의 역할이라는 이중적인 관계로 인하여 역할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것이 장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담관계에서 학생과 상담관계를 구조화할 때에 이중적인 관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여 동의를 구한 후에 진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상담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학교상담은 학교생활의 특성상 교사들이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원활히 하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으며, 단회기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서의 상담은 전문기관에서의 장기상담과 달리 단기 혹은 단회상담이 더욱 적합하다.

이상과 같은 학교상담의 특징은 학교상담은 다른 기관의 상담보다 상담활

동을 전개하는데 많은 장점이 있으며(박경애·양미진·김혜영, 1999),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 안에 있는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전문상담기관은 접수면접 등을 통하여 내담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해야 하지만, 학교는 학생에 대하여 이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를 적절하게 수집·분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통합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일반 상담기관에서의 상담은 일주일에 1-2회 정도의 예약된 시간 동안만 상담이 가능하지만 학교상담에서는 상담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장면에서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학교상담은 상담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 학교현장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상담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상담을 장기적으로 혹은 추수지도가 가능하다. 상담의 목적은 상담종결 후에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가에 있다. 학교상담의 경우에는 이러한 추수지도가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학교상담은 학교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른 상담기관에 비하여 장점을 지닐 수 있으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섯째, 학교는 학교 내외적으로 학교구성원들과 학부모 자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성하여 상담활동을 하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구성원은 가칭 “학교상담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조직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여섯째, 수업상황을 활용한 상담활동이 가능하다. 상담기법을 보면 학교현장의 교과목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대화기법과 문장완성검사(SCT)는 국어과목과, 진로상담은 실과 과목과, 그림검사 혹은 미술치료는 미술과목과, 음악치료는 음악과목과,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은 수학이나 과학 과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상의 학교상담의 장점은 다른 기관에서는 별도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기존의 상담적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첨가된다면 상담활동을 전개하는데 더욱 용이할 것이다.

2. 초등교육상담의 문제점

1950년대 우리나라에 학교상담이 도입 된지 5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교도 교사제도, 진로상담교사제, 전교사의 상담교사화, 전문상담교사양성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학교상담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학교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연문희·강진령, 2002, 김계현·김동일·김봉환·김창대·김혜숙·남상인·조한익, 2001, 박경애·양미진·김혜영, 1999 등).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연문희·강진령(2002)은 일선학교의 상담활동에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1987). 첫째 초등학교에는 상담실이 있는 곳이 극소수에 불과하며, 상담실이 있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상담실이 좁아서 다양한 상담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둘째, 비밀을 요하는 전화상담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학교의 상담실과 상담활동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며 홍보가 되어 있더라도 잘 못 되어 있으며(이향자, 2002), 넷째, 상담교사의 상담기술과 이론이 부족하며, 기술과 이론이 습득되어 있더라도 실제 적용능력이 부족하며(최승희), 다섯째, 학생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여섯째, 상담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며, 일곱째, 학교경영자나 관리자의 인식 부족, 여덟째, 상담으로 인한 수업결손문제, 아홉째, 상담교사의 수업을 비롯한 업무과다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1999년 이후 5년째 시행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김동일, 김창대, 신을진, 2003). 먼저 상담실습이나 상담사례지도감독이 부족한 편이어서 실제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둘째, 일부 교사들은 승진을 위한 점수 얻는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으며, 셋째, 양성기관의 상담에 대한 비전문성을 지적하고 있다(연문희·강진령, 2002). 넷째, 미국의 학교상담자 양성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 시행된 많은 상담제도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앓고 진해되어 왔으며, 이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의 상담활동이 정착되는데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동혁(1999) 또한 우리나라 학교상담은 학교상담의 특징과 비교해 볼 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학교상담이 학교상담서비스의 대상인 학생보다는 교사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상담을 하기에는 학교상담의 체제가 적절하지 못하며, 셋째, 학교상담활동을 가능케하는 지원체제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한편 많은 조사연구들은 학교현장에서의 상담의 비밀보장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은혁기, 2001).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그 속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고민이 있을 때 상의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장 먼저 친구를 말하고 그 다음은 부모, 그리고 그 다음이 교사를 이야기 한다. 이렇게 교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은 이유는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이다. 학생들은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거나 않을까 하는 고민을 더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상담교사는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비밀보장을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현장에서 일선교사들이 상담활동을 전개하고자 할 때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상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사들은 상담활동을 중단 또는 포기하거나 일부의 교사들은 외부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상담전문기관이 아니라, 청소년기관,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 기관이었다. 따라서 초등교육의 중책을 맡고 있는 교육대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상담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학교상담의 문제점은 크게 제도적인 측면, 상담교사 양성 측면,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학교상담의 발전 방향과 초등교육상담

본장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학교상담의 특징과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현재 학교상담의 여러 가지 주요 발달변화경향에 비추어 초등교육상담의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학교상담은 사용되는 용어, 인식이나 의미, 방법 등에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지 50여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변화의 주제는 상담의 정의와 의미의 변화, 상담의 전문성, 다루는 문제의 다양화, 상담방법의 다양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은혁기(2003)의 원고를 중심으로 그 특징적인 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상담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의 상담으로

학교상담을 정의하는 용어 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생활지도(guidance), 그 다음은 생활지도와 상담,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상담(school counseling)이라는 용어로 변화하였다. 이런 용어상의 변화의 의미는 전통적인 교사나 상담자 중심의 통제관리형 생활지도에서 내담자나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특징 중심의 존중과 이해형 상담으로 변화를 하여 학교에서의 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따라서 학교상담은 교사 위주가 아닌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상담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문제해결 중심에서 예방과 잠재능력의 개발 및 발달 중심으로

상담이라는 용어정의와 내용 및 기능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하였다. 기존에는 “상담자와 문제가 있는 내담자간의 면대면 관계에서의 대화를 통한 내담자의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정의되어 왔다. 즉 상담을 받는 대상은 문제가 있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담의 문제예방기능, 문제해결 및 잠재능력의 개발 기능이라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거부감이 들게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주변사람들 또한 그 학생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왔다.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개개인의 성장발달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 교육장면에서의 상담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문제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협의의 개념에서 문제 예방적 기능과 어느 시기보다도 발달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Shumit, 2003). 또한 문제중심의 정의는 상담의 기능과 상담교사의 역할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도록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상담은 문제 해결중심이 아닌 문제해결과 함께 문제의 예방, 학생들의 잠재능력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할 것이다.

3. 면대면 상담에서 아동특성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상담은 방법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하였다. 기존에는 주로 일정한 형식의 상담공간에서 면대면의 대화 위주의 개인상담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에는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를 통한 상담, 전화상담 등 그 방법이 개발되어 왔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등이 상담의 새로운 형태의 상담방법이 개발 및 발전되어 왔다. 또한 상담의 학교현장에 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재 교구를 이용한 상담(플라주를 활용한 집단상담), 저소득층과 학교부적응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인간망(네트웍) 활용상담, 학교현장의 장기상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혹은 문제해결중심상담, 동료 학생들을 활용한 또래상담(Peer Counseling) 등의 다양한 상담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기존의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면대면 대화의 틀에서 벗어나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된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더욱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상담은 학교현장의 특수성에 적합한 여러 가지 상담방법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상담의 결과 중심에서 과정과 평가 중심으로

상담의 과정과 평가에서의 변화를 보면, 기존의 전문상담기관에서는 아동상담의 치료효과가 많은 관심이었다. 학교상담에서도 치료효과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전문기관에서는 상담시간만이 치료효과를 위해 상담자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학교에서의 상담자는 동시에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담과정 동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어떤 문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상담기관에서의 상담과 다르게 학교상담에서의 상담은 치료과정 자체가 많은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에서의 상담을 교육상담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상담은 학교라는 장면이 가지는 특수성(통합적 지도가 가능하다)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상담의 결과만이 아닌 상담의 과정을 중시하고 평가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이론 중심에서 실습위주의 전문성장화로

대부분의 일선학교사들의 상담욕구와 관련된 연구결들을 보면, 현재의 상담 연수나 교육이 이론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어 이를 학교현장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김동일, 김창대, 신을진, 2003; 허승희, 2000). 이들은 국내외의 상담전문인력 양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 상담전문인력 양성에서도 실제 적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습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담은 실제에서의 적용을 위한 응용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 위주의 강의식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의 필요하다.

6. 수업 밖에서 학급의 수업상황을 중시하는 상담으로

지금까지의 학교상담과 관련된 상담이론들은 주로 수업상황을 벗어나서 일정한 독립된 공간을 요구하는 상담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학교교사가 상담교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면 교과 수업상황을 배제하고 상담을 논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실재를 도외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상담과 관련된 상담이론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실제 수업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예로써 인지행동수정의 비학습행동 수정을 위한 자기통제 혹은 자기조절 기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은혁기, 2000).

IV. 초등교육상담 활성화 방안

1. 초등교육상담제도상의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진로상담실을 두어 어느 정도의 상담실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담실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극소수의 학교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또한 열악한 수준이다.

이는 교육법상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상담실 설치나 관련부서가 명시하여 존재하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항에 정교사, 준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와 함께 전문 상담교사 제도를 두어 <표 1>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는 사람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03).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항에 초등학교에는 제1항(교장, 교감, 일반교사)과 제2항(교과전담교사)의 교사외에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치기준을 보면 교장, 교감, 일반교사, 전담교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두도록 하고 있으며, 양호교사의 경우에도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배치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못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교상담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1명의 상담자가 최저 400명에서 800명의 학생들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허승희, 2000), 대만의 경우에는 1978년에 초등학교 상담제도가 완료가 되어 처음에는 임시연수회를 통하여 교사들 중에서 선발하여 인력을 충당하였으나, 1983년 법으로 규정한 후부터는 Taichung Junior Teachers College의 교육대학에서 초등학교 상담교사를 양성하여 처음에는 몇 년간의 교직경험을 하게하고 사정시험을 통과한 후에 25학급이상인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활동을 하게 하였다(김진희, 오익수, 최동욱, 권해수, 1995). 이와함께 상담실 설치 기준도 시행령에 의해 자료실, 상담실, 특별교육실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담교사와 관련된 제도상의 여러 가지 미비점을 재검토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초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12학급 학교에 상담교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기도 한다(남궁용권, 2002). 김진희 등(1995)은 양호교사의 기준 즉 18학급이상인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할 경우 너무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대도시의 대형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상담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청 단위의 2,3차 전문상담실을 설치하여 초등학교 상담실 운영을 지원토록하고 있다. 이러한 2,3차 전문상담실의 역할

은 교육대학교에서 기존의 교육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의 상담서비스 기능을 교육대학교 재학생 중심에서 아동, 일선교사,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이 중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상담실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청소년기본법, 2002 ; 문화관광부,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 2003),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실은 서울시(서울시 동부시립아동 상담소 등)를 비롯한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필요할 것이다.

2. 교육대학교의 상담실 기능 강화¹⁾

1

1) 교육대학교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현재 교육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생활연구소의 경우 학생상담과 연구를 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각 대학교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은 일반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대학교 나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초등교원의 수급불안정으로 인하여 일반 대학교의 진로나 취업과 관련된 기능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2003년도 신입생부터는 20% 정도가 과잉공급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교육대학교에서의 상담실의 기능과 그 대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학생을 위한 기능은 교육대학교의 거의 모든 재학생들이 졸업 후에 일선학교의 교사로 취업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기능을 대학 생활의 적응과 함께 그들이 앞으로 수행할 예비교사로서의 생활지도와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그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선 초등학교상담교사의 2차적인 전문상담지원체제로서의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경우 그들이 생활지도와 상담교사 역할을 수

1) 교육대학교의 상담실 기능 강화 방안은 본 필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장을 역임하면서 개발한 “생활권중심의 청소년상담실 운영모델”(은혁기, 조병은, 이현아, 1999)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청소년상담실에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2회, 문화관광부 장관상 2회, 한국청소년상담원장상 4회 등을 수여받기도 하였으며, 각종 방송매체를 통하여 프로그램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행하다가 필요할 경우 지원을 받을 기관이 없다. 또한 앞에서도 초등학교 교사들은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여도 가까운 곳에서 받을 교육이나 연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이나 여러 상담연수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론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실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상담교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교육대학교의 박사과정 개설과 관련하여 한국 교원대학교의 경우처럼 파견교사제가 이루어진다면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의 실습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으며, 지금 현재처럼 계절제 혹은 야간제의 경우에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한 실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능은 결국 졸업생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서비스 기능이기도 하며, 교육대학교와 일선 초등학교간의 연계 강화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서비스의 제공과 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등학교 청소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실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아동들의 경우에는 몇몇의 광역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동 전문상담실이 없다. 따라서 초등학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대학교의 상담소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및 연구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상담, 교육 서비스의 제공과 이와 관련된 연구활동이다.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다른 중등학교의 학부모에 비해서 교육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데 대하여 체계적으로 전문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상담 기관은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기반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전문 상담인력이다. 초등교사 전문양성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수행할 전문상담인력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담실 공간이다. 기본적인 공간으로는 접수 및 사무실, 자료실,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컴퓨터활용 검사가 가능한 공간), 집단상담실, 그리고 집단 교육실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실 활동공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보급률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나 대부분의 지역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활용한 상담공간(사이버상담실)이 필요하다. 세번째 지금의

학생생활연구소라는 명칭을 “OOO교육대학교 상담센터”라는 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생활연구소라는 명칭은 4.19이후 학생지도연구소라는 명칭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로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강진령, 연문희, 2002).

이상과 같은 역할을 교육대학교의 상담소가 수행을 한다면,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초등학교 현장, 아동, 가정을 연계시키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다.

<표 2> 교육대학교 상담 센터의 대상과 기능(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안)

- 재학생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 상담, 교육, 연구
- 예비교사를 위한 상담, 교육, 연구
- 현장교사의 상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연구
-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상담, 교육, 연구
-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상담, 교육, 연구

2) 상담자원봉사 동아리의 구성 및 지원

상담자원봉사동아리는 또래상담프로그램과 대학생 멘토링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이다. 또래상담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경우 고민이 있을 때 동료친구에게 가장 많이 의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기초를 하여 또래에게 일정의 상담교육을 받게 하고 이들을 또래상담자로 활용하는 것이다(은혁기, 2002). 그리고 멘토링 시스템은 대학생들을 일정의 상담교육을 받게 하여 그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유성경, 이소래, 1999). 따라서 상담자원봉사 동아리는 교육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동료나 후배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대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사회봉사이수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에게 재학 중에 이수토록 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사회봉사의 내용을 보면, 주로 학습지원을 활동이다. 그러나 이들이 수행하는 학습자원봉사는 일반적인 과외교사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교육대학교 학생이 하는 학습자원봉사 활동을 일반적 사람들이 하는 활동과 차별

화하여 전문성에 기초한 활동이 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원봉사 동아리를 구성 운영토록하여 일정 수준의 상담 교육을 받고 준전문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재학중에 예비교사로서의 생활지도와 상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상담소에서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검사를 할 때에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담센터가 설치된다면 전문인력과 함께 상담사업 및 연구를 할 때에 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이들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이버상담원 기능). 셋째, 학습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나가는 많은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들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원봉사 동아리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이들에게는 그 자체를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등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상담교육과정의 재편성

많은 학교상담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보면, 첫째는 교육 및 교육과정이 이론위주로 이루어지고, 실습과 같은 실제와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학부, 대학원 전문상담과 교사 양성과정).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현대 상담의 흐름 중의 하나는 이론 중심이 아닌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상담자 양성과정에서 전문가의 지도감독하에서 풀타임제 실습을 최저 200시간에서 최고 700시간 동안 실시하며(허승희, 2000),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상담은 아니지만 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인상담은 20사례 이상을 합200회 이상하고 그 중에서 지도감독하에서 4사례 합30시간 이상을 해야 하며, 집단상담 80시간 이상, 심리검사의 경우에는 개인용 검사 20사례 이상, 집단용 검사 5회 이상을 실시하여 분석 및 해석하여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02). 상담은 적용학문적인 특성이 아주 강하다(김계현, 2000). 따라서 교육대학원 교육상담전공과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경우에는 특히 이론과 함께 이를 실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은 앞에서 제시한 상담센터의 온라인 오프라인 활용 방법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부의 경우에는 상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이 생활지도와 상담 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다. 상담이 다른 전공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과목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검사, 집단상담이며, 여기에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추가하고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상담심리학회와 한국 상담학회의 자격심사 과목에는 이를 모두 중요시 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교사들은 이러한 상담과목의 확충과 함께 교육대학교에 상담심리학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남궁용권, 2002). 따라서 교육대학교의 학부 교육과정에 세과목에 대하여 학생들이 재학 중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체 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초등교육학과의 심화과정이라도 실험적으로 개설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재학생의 실습기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을 위주의 실습에 상담면접을 한두 사례정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4. 초등학교 상담의 활성화 방안

1) 상담실 설치 운영방안

초등학교 교사들의 에 중등학교에서처럼 상담실 설치 필요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학교현장에서의 상담실의 설치는 그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남궁용권, 2002; 이향자, 2002 ; 박경애, 양미진, 김혜영, 1999 ; 김진희, 오익수, 최동욱, 권해수, 1995 등). 그러나 실제로 초등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한 학교는 남궁용권(2002)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183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2.8%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그 효과 또한 불분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실이 모든 학교에 설치가 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상담실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하나의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보다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제시하는 것이 좀더 현장 교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선학교 교사들의 노력에이러한 상황에서도 학교교사들의 노력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학교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성공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이향자 2002) 이향자(2002)의 논문 에 사례로 제시된 초등학교는 서울 아현 초등학교의 사례이다. 그리고 아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필자가 앞에서 제시한 초등학교상담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열악한 상담활동 여건 속에서 가능한 인적 구성원과 공간,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운영상황과 그 효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운영현황

상담실 조직 및 인력구성 : 2000년 3월부터 상담교사 2명과 상담자원봉사자 4명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2002년 현재 상담교사 3명과 상담자원봉사자 8명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상담실은 생활인성부장의 밑에 하위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상담교사 중 상담실장은 미국에서 초등상담전공 석사학위를 이수하였으며, 나머지 2명 또한 국내대학에서 상담전공 석사학위를 이수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8명은 상담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사경력이 있는 학부모들로 교육청에서 60시간 연수를 받았다. 그리고 상담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은 박사학위 소지의 상담심리전문가인 현직 교수가 월 1회씩 하고 있다.

상담실의 위치와 구조 : 본관 2층 서쪽 출입구로 학생들의 통행이 비교적 적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실과 집단상담실로 되어있다. 그리고 상담실 분위기는 편안하고 재미있게 장식이 되어있다.

운영시간 : 운영시간은 월요일 9시부터 17까지로 되어 있으며, 오전에는 상담자원봉사자들의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한 심성계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오후에는 개인상담을 교과전담인 상담교사 3명이 실시하고, 집단상담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실시된다.

상담실 홍보 : 홍보는 전체적으로 연초에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실시하고, 사이버상의 홈페이지 (따뜻한 이야기 방,

<http://lovenkid.com.ne.kr> /) 운영과 방송조회시간을 통하여 실시하며, 학부모에게는 한 학기에 한번씩 학부모 연수를 통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자들이 심성계발 프로그램 시간을 통하여 항상 실시한다.

상담실의 주요 활동 : 먼저 자원봉사자들의 심성계발 프로그램을 보면 (<표 2>), 한 학급을 3~4집단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공간에서 소집단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년별로 5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2> 상담자원봉사자들의 심성계발 프로그램

영역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업	긍정적인 학습태도 형성	우선순위 이해를 통한 시간관리 향상	스트레스의 이해 및 대처방법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향상
개인	자신의 장점 발견하기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인터넷, 약물 중독의 이해	자기주장훈련
사회	생각-감정-행동의 관계 이해하기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사회적인 감정표현 방법 향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이해
진로	자신의 재능과 흥미에 대한 검사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동기부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 세우기	다양한 직업가치에 대한 탐색

둘째, 개인상담은 주로 상담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요 상담내용은 따돌림, 성격, 학업문제, 폭력, 가정문제, 교사편애 문제, 이성 문제 등이 많았다.

셋째, 오후에 이루어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부끄러움 극복을 위한 사회기술 훈련,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인 아이들을 위한 사회기술 훈련, 멋진 우리 프로그램, 학습습관 향상프로그램, 진로인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또래상담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전입생 아동을 위한 학교적응 프로그램(또래상담반 활동)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상담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재정적 지원 및 의뢰체계 : 100만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로 시설과 비품, 환경조성, 운영협의회 운영 등으로 사용하고, 학교 교육비를 상담실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과 학부모에게 실비수준의 수익자 부담을 실시하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인근의 청소년상담센터와 정신과 의사와 연계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특수학급교사로부터 아동의 이상행동과 심리에 관한 자문의 받고 있다.

운영상의 애로점 : 운영상의 애로점은 가장 먼저 예산편성이며, 학교상담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없어서 다양한 활동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학교상담교육과정의 개발과 같은 실제적인 내용과 지침들의 개발이 어려웠으며, 상담교사가 교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여러가지의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이 힘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활용과 다양한 주제별 상담기술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나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을 비롯한 다른 학교 구성원들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이끌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2) 상담실 운영결과

운영결과는 아현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의 대부분인 95%이상의 아동들이 상담실을 이용하였다고 하였으며, 실제 상담대상은 상담교사가 76.7%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을 하게 된 동기는 집단상담을 통해 하게 됐다는 응답이 91.5%로 가장 많다. 상담 장소로는 상담실(83.3%)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상담실을 이용한 횟수는 4-6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실을 알게 된 동기는 안내문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담실 위치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당한 이유로는 일반교실과 가깝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적당하지 않은 이유는 눈에 잘 안 띄이는 1층 끝에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상담교사는 상담내용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상담교사의 자질로써 친절함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운영결과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은 보면 상담실 운영의 하나의 모델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담활동에 참여 동기 부분을 보면 자원봉사자의 집단상담을 통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는 점으로, 이향자(200)의 연구에 의하면 스스로 상담실을 찾는 학생은 극히 적었으며, 전체의 57%만이 상담실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를 자원봉사자들의 집단상담을 통하여 상담에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적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는 상담활동에 대한 인식을 고민이 있을 때 스스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홈페이지 상에서의 아동들의 활동을 보면, 많은 고민들의 상담교사들에게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실의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상담교사들이 찾아가는 상담실을 위주로 하되 아동들이 고민이 있을 때 스스로 찾아오는 상담실로 인식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2) 일반적인 학교 상담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앞의 내용은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상담실이 대부분이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에 상담실이 없는 상황에서의 초등학교에서의 상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지적했듯이 상담교사들이 학교에서 상담활동을 전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 환경적, 행정적, 심리적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오인수(2002)와 강진령 등(2004)등은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많이 하게 되는 학교 상담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효과적이며 실제성 있게 제시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그들의 연구결과를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나름의 방안을 첨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상담할 시간이 없다는 지적, ① 아침에 (집단)상담하기, ② 재량 활동 시간 이용하기, ③ 특별 활동 시간 이용하기, ④ 주당 수업 시간 줄이기(저학년, 교과), ■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하기, ⑥ 서면 상담하기(쪽지 상담, 일기장, 상담공책을 통한), ⑦ 수업시간을 활용한 상담하기 (예, 비학습행동 수정을 위한 가지통제 기법, 자기조절 학습 기법, 과목별 특성을 이용한 상담하기-실과는 진로상담, 미술은 그림검사 또는 미술치료, 국어는 대화기법 훈련과 문장완성검사, 독서요법 등, 음악은 음악치료, 수학과 과학은 사고력과 논리력 향상프로그램, 등). ⑧ 미리 상담준비 하기(상담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막연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담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도구들을 미리 준비하여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상담신청서, 상담 및 교육자료, 간이 검사도구 등)

(2) 상담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 : ① 교내 관련교사 모집하기(교육대학원 상담전공 교사,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이수자, 양호교사, 영양사, 등), ② 교육청에 상담자원봉사자 신청하기, ③ 상담기관에 상담자 협조받기, ④ 교사 상담교사 협조 받기, ⑤ 또래 상담양성 및 활용하기, ⑥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동사무소의 사회 복지사, 복지관, 대학교의 상담 전공자, 자원봉사기관, Food Bank기관, 경찰관서)을 발굴하여 상담 인력의 data bank 구성하기

(3) 상담할 장소의 문제 : ① 일반 교실 활용하기, ② 상담 교실 만들기,

③ 상담 방법을 다양화하기, - 편지를 통한 상담, 인터넷 채팅, 녹음 테이프를 통한 상담하기, ④ 제 3의 장소 개발하기(나무 밑 벤치, 교사 휴게실, 학년교실, 교사 회의실, 교장실 등)

(4) 상담할 학생들이 없다는 지적 : ① 적극적인 홍보활동하기(안내 책자 혹은 팜플렛 배부하기, 상담게시판 활용하기, 상담 소개 비디오 보여주기, 학부모 방문의 날 활용하기) ② 상담 신청방법 다양화하기(상담신청서와 상담신청함 만들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상담실), ③ 상담 행사 벌이기 ④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하기(방학 중 집단상담 활동 프로그램, 학부모와 함께 하는 MT 등), ⑤ 학교 특색 사업으로 상담 활동하기(재량 시간 등을 활용하면 고정 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보할 수 있음). ⑥ 상담 대상 학생 추천 받기(담임교사 혹은 교과 교사로부터),

(5) 학교장의 협조를 받는 문제 : ① 상담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이기, ② 다양한 상담활동 전개하기, ③ 조금씩 요구하기, ④ 평소에 인간관계 형성하기, ⑤ 학교장 및 교감, 교무, 행정실장, 학교운영 위원 등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 개선과 유지, ⑥ 담임교사 및 교직원들과의 협조 관계 형성 : 자료 제공, 무료강좌 초대, 동료 상담, 친하기 기법으로 진짜 친해지기를 시도함.

이상과 같은 문제 외에도 학교현장에서 상담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선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체계를 개발하여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기 상담의 경우나 심각한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상담교사가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해야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상담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교사의 안정적인 배치와 다른 교사와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최장 5년이라는 주기로 순환발령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에 기존의 상담활동은 많은 변화를 거치거나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다른 교사와의 협력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다.

V. 맺는 말

지금까지 초등교육상담활성화를 위하여, 초등교육상담의 특징과 문제점, 학교상담의 발전 방향, 초등학교 상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교육대학교의 상담 기능 강화와 초등학교 상담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초등교육상담이 필요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이견 또한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의 방안 중에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기관,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전제가 될 때에 우리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다른 구성원들의 격려와 관심이 뒤따를 것이며, 이러한 결과 초등교육의 교과와 생활지도와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정상화로 나타날 것이다. 많은 교사들은 현행의 공교육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생활지도와 상담 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있다(김동일, 김창대, 신을진, 2003). 또한 많은 대학교의 교육대학원 상담전공과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지원자 현황에서도 그 바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초등교육상담활성화를 위한 최대의 기회가 될 것이며, 여기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초등교육 상담 전문 인력이 양성된다면 그 효과는 아동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03). 초·중등교육법.
 교육부(200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김계현(2000). 상담심리학 연구. 서울: 학지사
 김계현·김동일·김봉환·김창대·김혜숙·남상인·조한익(2001).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학지사.
 김동일, 김창대, 신을진(2003). 공교육의 위기와 극복방안 탐색 : 전문상담교사체계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논문자료집.

- 김진희, 오익수, 최동욱, 권해수(1995). **학교상담발전체제연구**. 청소년대화의 확장
- 남궁용권(2002). **초등학교 상담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관광부(2003). **청소년기본법**.
- 문화관광부(2003).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
- 류방란(2002). **초등교사의 생활과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 RR 2002-5.
- 박경애·양지민·김혜영(1999). **학교상담실태 및 모형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92). **학생상담의 이론과 실제**.
- 연문희·강진령(2002). **학교상담**. 양서원.
- 유성경·이소래(1999). **비행예방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멘토링프로그램 운영지침서**. 한국청소년상담원
- 오인수(2002). **초등학교 상담실 운영 자료집**, 서울아현초등학교
- 은혁기·조병은·이현아(1999). **생활권내의 통합적 청소년상담서비스체제 구축, '99청소년 상담자 전국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상담원. pp. 29-40.
- 은혁기(2000). **대인관계능력향상을 위한 자기조절집단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기술 및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은혁기(2002a).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실태와 만족에 관한 연구**. 제2회 안양 시청소년 상담 심포지움 자료집. pp. 37-97.
- 은혁기(2002b). **또래상담훈련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대인도움기술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Vol. 16, No. 4, pp. 41-59. 한국교육심리학회.
- 은혁기(2003). **학교상담교사로서의 역할과 과제**,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 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pp.
- 이동갑·강진령(2004). **초등학교 상담실 운영방안, 2004년도 한국학교상담학회 워크샵자료집**.
- 이동혁(1999). **학교상담체제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의 질적 차이에 관한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향자(2003). 초등학교 상담실 운영실태와 인식에 대한 연구. 안양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혁표 역(1992). 학교상담심리학. 神保信一 외 3인공저.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한국상담심리학회(2002). 상담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 한국상담심리학회.

허승희(2000) 우리나라 초등학교 상담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과제. *초등교육
연구*, 14(1), 129-143

Gibson, R. L. & Mitchell, M. H.(2003). *Introduction to Counseling and
Guidance(6th)*. Merrill Prentice Hall.

Schmidt, John J.(2003). *Counseling In School*. Allyn and Bacon.